

<십자가 고난③>

요한복음 19장 31-37절 말씀

- 31 이 날은 준비일이라
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
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
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
- 32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
- 33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
다리를 꺾지 아니하고
- 34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
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
- 35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
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
- 36 이 일이 일어난 것은
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
- 37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

<장사지냄>

요한복음 19장 38-42절 말씀

- 38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
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
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
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
- 39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
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
- 40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
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
- 41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
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
- 42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
예수를 거기 두니라